

프로듀서 변신 지코 다시 뮤지션으로

블랙핑크 제니 피처링 '스팟!' 발표... 1년 9개월 만에 컴백

지코(ZICO)가 프로듀서에서 아티스트로 컴백한다.

지코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아티스트이자 하이브의 레이블인 KOZ(KOZ)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해 KOZ엔터테인먼트가 론칭한 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총괄 프로듀싱을 맡으며 제작자로서 입지를 다졌고, 26일 디지털 싱글 '스팟(SPOT)! (feat. JENNIE)'을 통해 오랜만에 '뮤지션 지코'로 돌아온다.

지코가 총괄 프로듀싱한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 15일 발표한 미니 2집 'HOW?'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상승 기류를 탔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신보로 초동(발매 직후 1주일간 음반 판매량) '하프 밀리언 셀러'를 달성했고, 일본 오리콘 최신 주간 앨범 랭킹(4월 29일 자/집

계기간: 4월 15~21일)에서 전작 대비 2배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지코가 프로듀서로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면서 그의 신곡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SPOT! (feat. JENNIE)'은 지코가 2022년 7월 발매한 미니 앨범 '그로운 애스 키드(Grown Ass Kid)' 이후 무려 1년 9개월 만에 정식 발표하는 신곡이다.

지코의 감성이 가득 담긴 힙합 곡으로, 지코와 함께 '음원 강자'로 불리는 블랙핑크 제니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리드미컬하고 세련된 랩이 강점인 지코와 매력적인 음색을 보유한 제니의 만남만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지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신곡 녹음실 메이킹 영상은 공개 직후 이틀간(22~23일) 한국 유튜브 인기 급상



디지털 싱글 '스팟(SPOT)! (feat. JENNIE)' 콘서트 사진. 사진=코즈엔터테인먼트

승 차트 순위권에 자리해 화제성을 입증했다.

지코는 댄스 챌린지 열풍을 주도한 '아무노래' '새뽕 (Prod. ZICO) (Feat. 호미들)'부터 축제 필수곡으로 꼽히는 '오키 도키(Okey Dokey)', '말해 Yes Or No (Feat. PENOMEKO, The Quiet)'까지 트렌드를 주도하는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제니와 합심해 내놓은 'SPOT! (feat. JENNIE)'은 한층 깊어진 그의 음악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정 기자

글로벌 K-팝 차트

순위	곡명	가수
1	Magnetic	아이릿
2	SHEESH	베이비몬스터
3	Smart	르세라핌
4	Standing Next to You	정국
5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여자)아이들
6	EASY	르세라핌
7	고민종독	QWER
8	Midas Touch	키스오브라이프
9	FRIENDS	뷔
10	Perfect Night	르세라핌

4월 14~20일 집계/씨클차트 제공

연애상담소 / 저도 칭찬을 듣고 싶어요.

칭찬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 우선 상대방부터 자주 칭찬해주세요

Q 저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외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격 좋다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제 자랑을 하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제 짝꿍은 제 칭찬을 안 합니다. 사귀기 전에 셋팅 때는 서로 칭찬했는데, 지금은 서로 살찐다거나 성격이 이상하다며 놀리기만 합니다. 남들이 제 외모, 성격을 칭찬해주는 것보다 제 짝꿍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칭찬받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입니다. 칭찬받고 싶으면 상대를 칭찬해주세요. 외모, 성격, 행동, 말. 무엇이든 칭찬해 주세요. 많은 경우, 상대방부터 칭찬을 들으면 답례로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해주곤 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귀기 전에는 칭찬을 주고받던 분들도 사귀고 난 후에는 칭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칭찬을 하

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칭찬할 거리가 변하지 않아 매일 같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외모는 하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 좋으니 매일같이 "늘 예쁘다" "오늘도 잘생겼다"고 해야 합니다. 외모 좋은 것은 본인도 이미 알 테니 굳이 매일 반복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격, 행동, 말 등도 그렇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은 늘 그런데 "넌 참 성격 좋다"고 매일 말하고, 늘 배려 깊게 행동하는데 "오늘도 배려 깊다"고 말하는 것이 반복적이라고 느껴 다시 칭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칭찬은 자주 할수록 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하는 칭찬은 "원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그 사람의 칭찬은 다소 흔한 것이라 여기고,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칭찬하면 그것이 아주 가치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의 가치



를 유지하려면 자주 칭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하지 않는 입장은 이러하나, 과거 칭찬을 들었다가 지금 듣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더라도 정작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칭찬을 듣고 싶다는 심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의 칭찬일지라도 반복적

으로 자주해주세요.

다음으로 상대방이 칭찬해줄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야"라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많은데 뭐..."라는 식으로 칭찬이 틀렸다는 듯이 답하면, 칭찬한 쪽도 난감합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기분 좋은 티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기분 좋아 하는 것을 보면 칭찬을 한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몰라 부정하거나 불편해하면, 함께 어색하고 곤란하니 칭찬을 덜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칭찬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칭찬해주면 기분 좋게 잘 받아주세요.



필자 최미정 라라연구소 대표는 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연애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애심리학자로서 『본의 아니게 연애 공백기』를 썼다.